

# 9월 22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9월 22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p>美증시, 달러 하락에 반등..다우 0.5%↑</p>	<p>뉴욕 증시가 22일(현지시간) 상승 마감했음. 달러 약세가 상품 가격을 끌어올린 점이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했고 종목들의 매수추진이 이어진 점도 투자심리에 도움을 주었음.</p> <p>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전일대비 51.01포인트(0.52%) 상승한 9,829.8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8.26포인트(0.39%) 오른 2,146.30을, 대형주 중심의 S&amp;P500 지수는 7.00포인트(0.66%) 뛸 1,071.66을 각각 기록했음.</p> <p>전일 달러 강세로 인해 하락했던 증시는 이날 달러가 약세로 돌아선 점을 호재로 삼으며 장 초반부터 매수가 우위를 보였음.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아시아의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빠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이는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부활시켰음. 반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국제 유가는 배럴당 71달러 선을 회복했음. 이로 인해 에너지주가 일제히 상승하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음. 또 유명 은행업종 애널리스트인 리처드 보베가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의 목표주가 상향했다는 소식은 금융주 상승을 견인했고 메이시스, 휴렛팩커드(HP) 등에 대한 월가의 매수 추진이 이어진 점도 투자심리를 호전시켰음. 증시는 7월 주택 가격이 월가의 예상치를 소폭 밑돌자 일시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하기도 했지만, 곧바로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 다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출구전략 논의에 대한 경계감이 형성되며 주가의 추가 상승은 제한되었음. 다우 지수를 구성하는 30개 종목 가운데 20개가 상승했고, 10개가 하락했음. 한편 이날 국채 시장도 주식 시장과 동반 강세를 나타냈음. 재무부가 실시한 2년물 입찰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국채 가격이 상승했음.</p>
<p>주택가격 3개월 연속 상승</p>	<p>미국의 주택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에 대한 세금 혜택이 수요를 늘린 결과임.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7월 주택 가격이 전월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음. 이는 블룸버그가 집계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 0.5% 상승을 밑돈 수준임. 다만 지난 5월 이후 석달째 상승하며 주택시장 안정 추세를 보여주었음. 주택 가격은 9개 지역 가운데 5개에서 상승했음. 특히 태평양 연안 지역의 상승률은 1.6%에 달한 반면 켄터키, 테네시, 미시시피 등이 위치한 동남중부 지역은 0.9% 하락했음.</p>

제목	주요 내용
국제유가, 나흘만에 상승..71달러 회복	국제 유가가 나흘만에 상승하며 배럴당 71달러를 회복했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가운데 원유 재고가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가를 끌어올렸음. 2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10월 인도분 가격은 배럴당 1.84달러(2.6%) 상승한 71.55달러에서 마감했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 점이 달러로 결제되는 원유에 대한 수요를 높였음.
中 지리車, `골드만 후광` 업나	골드만삭스의 지리 자동차 투자는 워렌 버핏의 BYD 투자에 필적하는 대규모 중국 민간 자동차 업체 투자가 될 전망. 22일 블룸버그 통신은 지리의 주가가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보도.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골드만삭스 캐피털 파트너스가 지리 자동차에 2억5,000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양측은 이에 대해 아직까지 묵묵부답임. 홍콩 소재 골드만삭스의 애드워드 나일러 대변인은 WSJ의 보도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지리의 다이 양 부대표 역시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음. 한편 지리의 올 상반기 이익은 자동차 벤처회사 인수와 저렴한 모델 양산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로 늘어난 5억9,590만위안(8,700만달러)을 기록했다.
李대통령 "북핵 해결, 그랜드 바겐 추진해야"	이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에서 개최된 코리아 소사이어티·미국외교협회·아시아 소사이어티 3개 기관 공동주최 오찬에서 `차세대 한미 동맹의 비전과 미래` 주제로 행한 연설에서 "북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통합된 접근법이 나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이대통령은 우선 "한반도 분단 상황을 극복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뿌리 내리는 것은 한미동맹에 남겨진 중대한 과제"라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먼저 이뤄야 하고, 그러기에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반드시 포기시켜야 한다"고 지적.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나타내는 징후는 아직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과거의 같은 해결 방식에서 탈피해야 함을 설파.
효성, 하이닉스 인수 추진 `향후 전망은?`	효성그룹이 세계 2위 메모리 반도체업체 하이닉스 인수에 뛰어들며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그동안 일각에서 효성이 하이닉스에 관심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지만 실제 인수전에 참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했기 때문. 지만 효성은 이날 단독으로 하이닉스 인수의향서(LOI)를 제출, 앞으로 주주협의회가 공지한 절차에 따라 인수 작업을 시작하게 됨 만일 효성이 하이닉스 인수를 마무리할 경우 효성은 세계 10위권 중반으로 자산규모가 확대됨. 다만 아직 의향서를 제출한 단계에 불과한 만큼 최종적으로 하이닉스 인수에 성공하기까지 넘어야 할 단계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임.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